

소통을 통한 안전으로 사업장의 무재해 구현!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부영 기술부장은 1991년 입사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초심을 잃은 적이 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듯, 지금까지도 관내 사업장의 무재해라는 목표를 가지고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부장’이라는 직책에 있다 보니, 대내외적으로 챙겨야 할 일이 매우 많다. 현장에서는 안전을 지도해주는 안전전문가로, 직장에서는 부서 직원들의 단합된 힘을 이끌어가는 직장상사로, 가정에서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역할까지 그의 몫이다. 이러한 ‘1인 3역’의 어려움을 남들보다 한 발 더 뛰는 부지런함으로 극복했다.

그는 최근에 두 가지 큰 선물을 받았다. 2013년 대한산업안전협회의 모범직원으로 선정됐으며, 바쁜 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 내어 공부한 결과 기술사(기계안전)라는 안전분야 최고의 기술자격을 취득했다. 긍정적인 사고와 함께 항상 노력하는 그의 모습이 이번에 두 가지 큰 결실로 이어졌다. 안전을 천직이라 여기며,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이는 정부영 부장을 만나봤다. 취재 임동희 기자 ldhfree@safety.or.kr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 정부영 기술부장

현장의 안전에 대한 열정과 끈기

정 부장이 처음부터 안전을 접했던 것은 아니다. 조선공학을 전공한 이후, 자동차부품 업체의 기술개발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1980년 당시 우리나라의 산업현장 모습이 그의 진로를 안전분야로 선화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현장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장 곳곳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소식을 접한 후 안전분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사고 대부분이 근로자의 조그마한 부주의와 회사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그러한 사고를 접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가족입장에서 봤을 때 출근했던 가장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겠습니까. 그러한 사고를 여러 번 겪다보니 안전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차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학으로 안전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안전을 담당했다. 그리고 1991년 10월 안전관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입사하게 된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종사하기 시작한 만큼, 그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업무에 임했다. 사업장의 점검 시 문제점을 발견하면 해결이 될 때까지 현장 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했고, 현장에 맞는 안전기법이 무엇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연구했다. 업무가 끝난 후 현장 관계자들과 사석에서

만나 얘기를 나눌 때에도 현장의 안전에 대한 내용이 항상 우선이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기술사 자격취득도 현장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간절했기에 가능했지 않았나 싶다. 물론 개인적인 성공 욕심도 있었지만, 이번 기술사 취득은 현장에 보다 나은 기술지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 좀 더 기술력 있는 전문가가 지도를 해주면 서비스를 받는 사업장 입장에서 더욱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격증 취득의 계기였다.

“사업장 기술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부터 문제점과 해결책을 명쾌히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사항만 개선할 뿐,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치려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좀 더 많은 지식을 쌓고 그것을 통해 현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기술지도

그가 협회 입사 이후 안전에 대해 한 가지 철칙을 정한 것이 있다. 바로 소통이다. 서로 간 친밀하고 신뢰가 높아야 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성품은 사업장에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매우 큰 힘이 되고 있다. “업무 특성상 관리자분들과 근로자분들을 항상 대하게 되는데 저는 그분들과 최대한 많은 소통을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밀감 속에 서로 간 마음을 열고 문제점을 함께 논의해 나가다보면 사업장의 안전수준이 자연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이 오히려 안전교육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 기술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짚어내도 사업장에서는 거리낌 없이 그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오히려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통과 신뢰를 통한 안전관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안전문화 전도사로서의 역할 기대

지금도 최고의 안전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안전’을 향한 그의 욕심은 끝이 없다. 개인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력을 높이고, 여러 자료를 활용해 업무능력을 높여나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그는 한 가지 큰 포부를 가지고 있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하루빨리 선진화시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바뀐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근 범국가적으로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분위기에 맞춰 우리 산업현장에서도 안전이 중요시되는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는 가운데에서도 현장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사업장에 안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기술과 신뢰감으로 울산지역 산업현장의 안전을 이끌고 있는 정부영 부장. 앞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전파시켜 나가는 ‘안전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해본다. ☺

